

# 전남도 신안해상풍력에 사활 걸었다

### '블루 이코노미' 핵심 프로젝트...내년 예산확보 총력 기재부 방문 '한국판 뉴딜' 정책과제에 반영 요청

전남도가 2021년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전남의 새전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중 핵심 프로젝트인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 예산실 예산심사관들을 찾아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내년 국고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중이다.

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 국비 예산을 1차 심의를 종료한 기획재정부가 2차 심의기간에 들어가 신규사업과 보류·정점

사업, 추가요구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기재부를 찾아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과도 부합되고 1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50여개의 기업 유치·육성을 통해 전남 지역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내년 역점사업으로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 평가센터 구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국립삼남혈관 설치 등 24건을 정해 기재부에 건의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민선 7기 전남도의 새전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중 블루 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반 마련을 위한 신안 해상 8.2GW(사업비 48.5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남도장터' 상반기 매출 135억

###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매출액 300억 돌파 가능

전남도가 운영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상반기 매출 집계 결과 지난해 보다 대폭 상승한 13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다가올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준비에 대응해 심혈을 기울일 경우 올해 매출액 총 3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도장터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12억3000만원 보다 무려 11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남도는 그동안 오피마켓, 소셜미디어, 종합몰 등 27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채널을 다각화하고, '코로나19' 농가들이 판촉·홍보 행사 등을 통해 '남도장터'의 신뢰도를 크게 높인 것이 요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함께 제2차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학생·학부모 19만 명에게 1인당 4만원의 남도장터 포인트를 지급한 방식의 마케팅 등으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해 중대형급 쇼핑몰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며 "안정적인 남도장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정보화마을, 농촌융복합기업 등 별도 카테고리를 개설해 농어민과 함께 소상공인의 판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장터는 올해 6월말 기준 전남 소재 907개 업체가 입점해 8535개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5만명이다. 매출상승에 힘입어 올해 매출액 목표를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수정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탄소중립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탄소중립 위해 지방정부 힘 모은다

### 환경부-지자체 80개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기후행동 강화를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환경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센 볼룸홀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져 서로 상쇄됨에 따라 순(Net)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

대'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행동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지자체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해 상향식 탄소중립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27명의 기초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전남도, 베트남에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11호점 개설

### 하노이 K마켓 리베라파크점에

전남도는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대형마트인 K마켓 리베라파크점에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11호점을 개설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개설은 올해 1월말 말레이시아의 제철된 상설판매장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신남방 지역의 유망시장 수출선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베트남은 현재 약 1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기업 진출이 늘어나 성장 가능성이 큰 해외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11호점인 K마켓 리베라파크점은

하노이 중심부의 대규모 현저인 주거단지 상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한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상설판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전남도 동아동상사무소와 운영사 주관으로 오픈 행사를 비롯 시식행사, 기자인터뷰 등 홍보판촉 활동을 함께 진행해 지역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전남도는 선호도가 높은 신선과일 제품과 검증된 상품 위주로 우선 수출을 진행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점진적으로 다른 제품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기업 투자유치 설비투자 보조금 상향

### 5억~10억 초과 금액의 10% 이내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업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유형별로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 초과 금액의 5%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 보조금을 5억~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상향했다.

광주시는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 고용 창출 효과가 지속하도록 상시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주지회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인센티브 확대도 투자유치 활동이 힘을 받아 광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7월 대표 전통주 '황금과 비파와인' 선정

### 완도비파영농조합법인 생산

전남도는 7월을 대표한 남도 전통주로 완도비파영농조합법인의 '황금과 비파와인'을 선정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비파는 4-6월에 수확된 황금색의 아열대 웰빙 과수로 과즙이 많으며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예로부터 '집 안에 비파나무가 한그루 있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열매와 줄기·꽃잎 등에 몸에 좋은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다.

감기예방에 좋은 비타민A를 비롯 피부 보호를 돕는 베타카로틴, 항암효과가 있는 아미그랄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황금과 비파와인'은 완도에서 재배된 비파만을 사용해 은은한 향과 풍부한 감칠맛,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통주 산업화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통주 산업발전을 위해 시설 현대화와 판로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과 비파와인'은 지난 2014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2019년 광주세계산수관대회 폐회식 만찬주 선정, 2015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062-412-2800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